

2019년 8월 2일

KIWOOM DAILY

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| Strategist/Market 사상영 02) 3787-5241/ehdwl@kiwoom.com

미 증시, 트럼프 여파로 매물 출회 되며 하락 트럼프 “9월 1일 3천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”

미 증시 변화 요인: ①추가 금리인하 기대 ②트럼프의 추가 관세 언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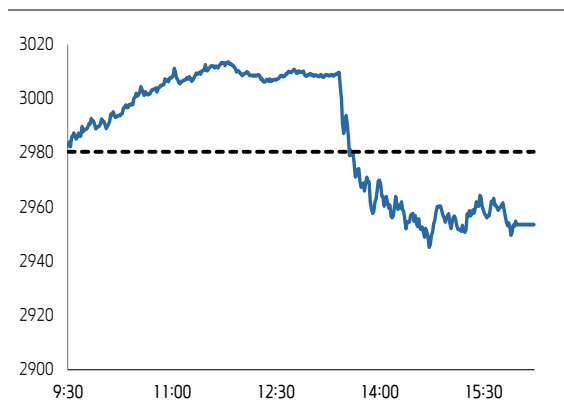
미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 여파로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 출발. 이에 힘입어 나스닥이 한때 1.7% 급등하는 등 투자심리 개선. 그러나 트럼프가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하락 전환. 국제유가도 8% 가까이 급락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급격하게 위축. 이 결과 미 증시는 고점 대비 2% 넘게 하락 마감(다우 -1.05%, 나스닥 -0.79%, S&P500 -0.90%, 러셀 2000 -1.51%)

미 증시는 ①추가 금리인하 기대 ②트럼프의 추가 관세 언급을 바탕으로 변화. 장 초반 미국의 6월 건설지출이 예상을 하회한 전월 대비 1.3% 감소하고, 7월 ISM 제조업지수도 전월과 예상치를 하회한 51.2에 그치며 부진. 특히 고용지수(54.5→51.7)가 부진한 점이 제조업지표 둔화 요인. 이로 인해 전일 금리를 인하한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를 인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투자심리 개선되며 미 증시 상승폭 확대

그러나, 오후 들어 트럼프가 “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 할 것” 이라고 트윗에 글을 올림.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 때 1.7% 상승하던 나스닥이 오히려 1.2% 하락으로 전환. 추가 금리인하 기대로 하락하던 10년물 국채금리는 낙폭이 확대되며 1.9%를 하회. 더불어 지표 둔화로 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8% 가까이 급락. 엔화는 달러 대비 한 때 1.5%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급격하게 유입.

시장은 지난 7월 30~31일 있었던 미-중 무역협상에 대한 보고를 받고 ‘긍정적’ 이었다고 이야기 한지 하루만에 추가적인 관세를 언급하자 충격을 받음. 더불어 9월 추가 협상 일정까지 나온 상태에서 관세 부과 언급은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어 대화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. 한편,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은 장난감은 물론 스포츠용품 등 소비재 중심의 제품이 목록에 올라 있어 향후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. 그렇기 때문에 소매협회 회장이 지난 6월 “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나, 추가 관세 인상은 미 경제에 너무 큰 도박” 이라고 주장했었음.

S&P500 일중 차트

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Global Indices

| 지수 | 등락률(%) | Close | D-1 | 지수 | 등락률(%) | Close | D-1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KOSPI | | 2,017.34 | -0.36 | 홍콩항셱 | | 27,565.70 | -0.76 |
| KOSDAQ | | 622.26 | -1.26 | 영국 | | 7,584.87 | -0.03 |
| DOW | | 26,583.42 | -1.05 | 독일 | | 12,253.15 | +0.53 |
| NASDAQ | | 8,111.12 | -0.79 | 프랑스 | | 5,557.41 | +0.70 |
| S&P 500 | | 2,953.56 | -0.90 | 스페인 | | 9,038.20 | +0.75 |
| 상하이종합 | | 2,908.77 | -0.81 | 그리스 | | 895.04 | -0.54 |
| 일본 | | 21,540.99 | +0.09 | 이탈리아 | | 21,566.91 | +0.79 |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

에너지 업종 급락

마이크론(-2.87%), 퀄컴(-2.68%), 인텔(-2.08%) 등 반도체 관련주와 원리조트(-5.50%) 등 카지노 회사들, TJX(-3.61%), 메이시스(-6.69%) 등 백화점 업체들, 나이키(-3.38%) 등은 미-중 무역분쟁 격화 우려로 하락 했다. 특히 소매유통업체들은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 중국 제품 관세 부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점이 부담이었다. 엑손모빌(-2.56%), 코노코필립스(-0.47%), EOG 리소스(-5.57%)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부진했다.

캐터필라(-3.71%) 등 산업재와 US스틸(-3.39%) 등 철강업종은 부진한 건설지출 등 영향으로 하락 했다. 다만 US스틸이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시간 외에 2% 내외 상승 중이다. 애플(-2.16%)과 쿠팡(-2.66%), 스카이웍(-2.94%) 등 부품주도 미-중 무역분쟁 격화 우려로 하락 했다. 한편 쿠팡은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 발표 영향으로 4% 상승 중이다. JP모건(-2.64%), BOA(-3.88%) 등 금융주는 국제금리 급락 여파로 하락했다.

주요 ETF

| ETF 종류 | 등락률 | ETF 종류 | 등락률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원유시추업체 ETF(XOP) | -6.23% | 대형 가치주 ETF(IVE) | -1.40% |
| 에너지섹터 ETF(OIH) | -6.03% | 중형 가치주 ETF(IWS) | -1.45% |
| 소매업체 ETF(XRT) | -3.24% | 소형 가치주 ETF(IWN) | -2.08% |
| 금융섹터 ETF(XLF) | -2.27% | 대형 성장주 ETF(VUG) | -0.57% |
| 기술섹터 ETF(XLK) | -0.51% | 중형 성장주 ETF(IWP) | -0.90% |
| 소셜 미디어업체 ETF(SOCL) | -1.07% | 소형 성장주 ETF(IWO) | -0.86% |
| 인터넷업체 ETF(FDN) | -0.92% | 배당주 ETF(DVY) | -1.03% |
| 리츠업체 ETF(XLRE) | +0.24% | 신흥국 고배당 ETF(DEM) | -2.16% |
| 주택건설업체 ETF(XHB) | -1.30% | 신흥국 저변동성 ETF(EEMV) | -1.37% |
| 바이오섹터 ETF(IBB) | +0.68% | 미국 국채 ETF(IEF) | +1.13% |
| 헬스케어 ETF(XLV) | +0.13% | 하이일드 ETF(JNK) | +0.01% |
| 곡물 ETF(DBA) | -1.19% | 물가연동채 ETF(TIP) | +0.37% |
| 반도체 ETF(SMH) | -2.02% | Long/short ETF(BTAL) | +2.42% |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US Sector Index

| S&P 500 | Close | D-1 | D-5 | D-20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에너지 | 451.93 | -2.28% | -2.55% | -3.09% |
| 소재 | 363.47 | -0.57% | -1.75% | -2.03% |
| 산업재 | 642.57 | -1.98% | -2.98% | -2.02% |
| 경기소비재 | 941.70 | -1.30% | -3.48% | -2.32% |
| 필수소비재 | 608.27 | -0.48% | -0.88% | -0.84% |
| 헬스케어 | 1,055.10 | +0.10% | -0.50% | -3.47% |
| 금융 | 458.55 | -2.32% | -2.73% | -1.61% |
| IT | 1,409.78 | -0.53% | -2.18% | +0.28% |
| 커뮤니케이션 | 168.35 | -0.49% | +0.44% | -0.04% |
| 유틸리티 | 304.94 | +1.01% | +0.61% | -1.13% |
| 부동산 | 232.28 | +0.22% | +1.61% | -1.07% |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한국 주식시장 전망

중국 정부 반응 주시

MSCI 한국 지수 ETF 는 1.28% MSCI 신흥 지수 ETF 도 1.96% 하락 했다.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(-2,664 계약)한 가운데 3.00pt 하락한 263.20pt 로 마감 했다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,194.5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/원 환율은 5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.

2018 년 9 월 30 일 미국이 2 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미국은 보합에 머물렀고, 중국 상해 종합은 3% 상승했다. 그 외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 -3%~+4% 내외의 등락을 보였다. 그러나 KOSPI 는 같은 기간 동안 13.9% 하락했고, KOSDAQ 은 24.3% 급락했다. 물론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었지만,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식시장은 한국이었음을 방증한다.

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곳도 한국이 될 수 있다. 지난 7 월 30~31 일 미-중 무역협상 이후 9 월에 추가적인 협상을 한다는 소식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중 한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요인이기도 하다.

그러나 트럼프의 대 중국 관세 부과 언급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. 여기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각료회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다. 다만, KOSPI 12 개월 Fwd PBR 이 금융위기 당시 수치인 0.80 배를 기록하고 있어 저가 매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장 초반 하락 후 중국 정부의 반응에 따라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

주요 경제지표 결과

미국 제조업지표 부진

7 월 미국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(51.7)이나 예상치(51.9) 보다 둔화된 51.2 로 발표되었다.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(50.0→50.8)는 개선되었으나 고용지수(54.5→51.7)은 부진했다. 한편, ISM에서는 기업들이 무역분쟁과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.

6 월 미국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1.3% 감소 했다. 전년 대비로도 2.1% 감소했다. 민간부문은 전월 대비 0.4%, 전년 대비 4.6% 감소 했으며 공공지출은 전월 대비 3.7% 감소 했다.

상품 및 FX 시장 동향

국제유가 8% 폭락

국제유가는 장 초반 부진한 제조업지표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출발 했다. 더불어 연준의 적극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약화된 점도 부담이 되며 4% 내외 하락세를 보였었다. 그러다 트럼프가 3 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언급하자 매물이 급격히 출회되며 8% 가까이 급락 했다. 이 여파로 무역분쟁이 격화될 수 있어 향후 원유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.

달러화는 부진한 경제지표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었다. 특히 그런 와중에 트럼프가 대 중국 관세 부과 언급하자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약세폭이 확대되었다. 특히 엔화가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달러 대비 1.5% 넘게 강세를 보이기도 한 점도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. 그러나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달러화의 약세는 제한 되었다.

국채금리는 장 초반 부진한 경제지표가 발표되자 연준의 추가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며 하락 했다. 특히 ISM 제조업지수 세부 항목 중 고용지수 및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크게 하락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.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대 중국 관세 발효를 언급하자 이번에는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으로 미 국채금리는 하락폭이 확대되었다. 특히 10 년물이 2016 년 11 월 이후 처음으로 1.9%를 하회했다.

금은 FOMC 영향으로 하락 했다. 그러나 시간 외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가 현재는 상승 중이다. 구리 및 비철금속은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으로 하락 했다.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.91% 철근도 1.83% 하락 했다.

| 주요 상품 | 종가 | D-1(%) | D-5(%) | 주요 통화 | 종가 | D-1(%) | D-5(%)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WTI | 53.95 | -7.90 | -3.70 | Dollar Index | 98.387 | -0.13 | +0.58 |
| 브렌트유 | 60.50 | -6.99 | -4.36 | EUR/USD | 1.1085 | +0.08 | -0.56 |
| 금 | 1,432.40 | -0.38 | +0.34 | USD/JPY | 107.34 | -1.32 | -1.19 |
| 은 | 16.180 | -1.37 | -1.41 | GBP/USD | 1.2128 | -0.25 | -2.65 |
| 알루미늄 | 1,780.00 | -1.06 | -2.52 | USD/CHF | 0.9904 | -0.36 | -0.05 |
| 전기동 | 5,899.00 | -0.47 | -1.80 | AUD/USD | 0.68 | -0.66 | -2.17 |
| 아연 | 2,404.00 | -1.64 | -1.48 | USD/CAD | 1.3212 | +0.16 | +0.36 |
| 옥수수 | 402.50 | -1.83 | -5.85 | USD/BRL | 3.8404 | +0.76 | +1.61 |
| 밀 | 475.75 | -2.36 | -4.75 | USD/CNH | 6.9545 | +0.65 | +1.18 |
| 대두 | 865.25 | -1.84 | -3.83 | USD/KRW | 1188.50 | +0.46 | +0.59 |
| 커피 | 97.25 | -2.41 | -3.38 | USD/KRW NDF 1M | 1194.52 | +0.63 | +1.00 |

| 10년물 금리 | 종가(%) | D-1(bp) | D-5(bp) | 10년물 금리 | 종가(%) | D-1(bp) | D-5(bp)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미국 | 1.894 | -12.09 | -18.75 | 스페인 | 0.289 | +0.90 | -6.30 |
| 한국 | 1.412 | +2.70 | 0.00 | 포르투갈 | 0.339 | -0.10 | -8.20 |
| 일본 | -0.130 | +2.30 | +2.10 | 그리스 | 2.034 | +1.30 | +3.90 |
| 독일 | -0.450 | -1.00 | -8.70 | 이탈리아 | 1.579 | +3.90 | +6.40 |